

# ‘광주형 통합 일자리박람회’ 1천500여명 몰렸다

‘2025 광주 함께 JOB 페스타’ 성료

현장 면접 등 실질 채용 성과 창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높아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 함께 잡(JOB) 페스타’가 1천5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형 일자리 박람회다. 기존 미니 취업박람회와 여성 잡(JOB) 페스타를 통합한 첫 대규모 행사를 치러져 의미를 더했다.

박람회에서는 주엔공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천사요양병원 등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50개사가 참여해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면접자를 즉시 채용하거나 추후 면접 일정을 조율하는 등 실질적 채용 성과를 거두며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했다.

참여 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우수 인재를 직접 만나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채용박람회에 지속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 광주 잡(JOB)페스타가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구직자들이 각 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내 일(JOB)을 찾고, 내일(Tomorrow)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통합형 일자리박람회’로 기존 ‘미니 취업박람회’와 ‘여성 JOB 페스타’를 통합, 확대 운영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114개 부스가 운영돼 구직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취업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등으로 구성된 ‘JOB 부스’는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또 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마켓과 AI·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산업 체험 부스는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와 연계해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들이 미래 유망 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 참여도를 한층 높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번 박람회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져 매우 뜻 깊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한국전력공사, 광주시기축전시센터, 광주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했다.

광주시는 광주일자리종합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통합 개최한 ‘잡(JOB) 페스타’의 운영 경험과 참여기업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 “전남도청 앞 공원 이름 지어주세요”

전남개발공사, 내달 10일까지 접수

전남개발공사는 26일 “전남도청 앞 전면 광장에 조성 중인 공원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조감도>

이번 공모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지역의 정체성·상징성을 담은 공공정원을 함께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7월 10일까지다. 응모는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공모는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작품이 선정되



며 대상 100만원 등 총 2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도청 앞 전면 광장은 아동·청소년·가족 모두가 즐겨 찾는 열린 공간으로 목표로 조성 중이다.

총 면적 2만㎡ 규모로 사업비는 37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전남개발공사의 기본부금 58억원 중 일부가 활용되고 있다. 현재 공사 진행률 45%로 오는 10월 개방 목표다.

도청 앞 공원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정원’이라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원 기본계획에 반영 했으며 지난 23일에는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진상황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설명회에는 나광국 전남도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참석해 자리 를 빛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도청 앞 공원 명칭 공모에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정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 고수온에 강한 ‘부세 양식’ 완도에 첫 분양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 대응 품종’ 부상

여수·고흥 이어 서남해안까지 확대 기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기존 양식어종의 폐사와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고수온에 강한 어종인 부세 종자 10만마리를 26일 완도해역 가두리양식장에 처음 분양 했다. <사진>

2015년 국내 최초로 부세 인공종자 30만마리 대량 생산에 성공한 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서해특산시험장)에선 2023년부터 양식 부세의 품질 향상을 위해 체형, 채색, 판매 크기, 적정 출하시기 구멍 등 자연선에 가까운 해상가 두리 양식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그동안 여수시돌산, 거문도와 고흥 녹동해역 등지에서 부세 양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초창기 수협 위원 가격은 마리당 크기 350g 기준 2022년 kg당 6천500원이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kg당 1만8천원으로 17% 증가했다.

여수지역 양식과 가공을 함께한 어가에선 ‘부세 굴비’ 제품 등을 만들어 백화점에 명절 선물



용으로 납품, 지난해 약 9억원(4천500상자) 이상 판매 성과를 냈다.

전남도는 고수온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해 부세가 임계수온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2023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실험 결과, 30°C까지(치어 29°C, 성어 30°C) 폐사하지 않고 양식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굴비의 본고장인 영광군과 협력, 참조기·부세 양식어가 확대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여수·고흥 등 종자 생산 및 가두리 양식장 9개소에 부세 수정란 2만4천cc, 우량 종자 50만마리 분양을 완료했다.

전남도는 완도에서 부세 첫 양식이 성공할 경우 조피볼락 및 돌류 가두리 양식장이 많은 완

도에서 신안 해역까지를 잇는 새로운 양식품종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남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여수나 고흥에서 양식되는 부세가 완도에서도 첫 양식을 시작해 매우 기쁘다”며 “완도에서도 부세 양식이 성공하면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민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여수서 고수온·적조 대응 모의훈련

전남도와 여수시는 26일 여수 남면 해태 해역에서 여름철 수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고수온·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기존 적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수온 상황까지 고려해 훈련 범위를 확대했다. 여름철 수산재해 전반에 대한 대응 역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경찰청, 해양수산과학원, 여수시 등 7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하고 30여 척·대의 선박, 항공기, 드론 장비 등이 동원됐다. /김재정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